

북중 관계의 제한 요인과 촉진 요인

김승재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머리말

본고는 1997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냉전 질서의 와해 이후에 동북아에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현재까지는 명시적으로는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막강한 군사력과 상당한 인적·물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서로 세력 각축을 벌이는 소위 '1+2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상당히 큰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의 역학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북중 관계는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과 맺어온 밀접한 동맹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한중 관계를 중립적 입장을 넘어 최소한의 선린 관계로

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하나의 한국'(북한을 의미)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한중 수교 이후 변화된 측면이 강하지만, 북미 핵협상 이후 북한이 어느 정도 對中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증대시키는 노력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중국이 북한에게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원유와 코크스 등 에너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우호가격제의 부활을 가져온 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 약간 소원해졌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1995년 이후 다시 긴밀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 7월 김정일의 방중 설이 나오고 있고, 김일성 주석의 3년 喪이 끝나고 금년 9월과 10월 사이 김정일의 당 총비서와 국가 주석 취임설이 나오고 있는 1997년은 북한 자체는 물론,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

화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1997년 북한과 중국의 정치·군사·안보·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양국 관계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전망할 것이다.

북중 정치 관계의 변화

북중 정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중국측 외교 정책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간의 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크게 세 개의 이론으로 설명되어왔다. 먼저, 중화 사상에 입각한 전통주의적 시각. 모든 외교 정책이 모택동의 사상과 개인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중국적)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적 시각. 그리고 중국의 외교 정책이 권력 개념, 국가 이익의 개념, 국제적인 제한 요인 등에 기인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주의적 시각, 특히 (중국적)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적 시각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변화해오고 있는데, 중국

한중 수교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적 가치'에 근거하여 혈맹 관계, 齒脣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하나의 한국'만을 고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등소평 사후의 후계체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요인과 현대화를 위한 경제 성장 문제,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1+2체제'에 의한 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1992년 한국과의 수교를 맺게 되었다. 한중 수교는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하여 양국 관계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냉각된 분위기는 1994년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서서히 해빙되기 시작하였다.

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외교 정책적 변화의 시각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중 수교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적 가치'에 근거하여 혈맹 관계, 齒脣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하나의 한국'만을 고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등소평 사후의 후계체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현대화를 위한 경제 성장의 문제, 그리고 냉전 질서의 와해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 특히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1+2체제'에 의해 對한반도 정책을 변화시켜,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한중 수교는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하여 양국 관계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냉각된 분위기는 1994년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서서히 해빙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북미 핵협상을 통하여 상당

1996년 5월 북한과 중국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중단됐던 양국 고위급간의 쌍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친선 관계의 강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작년 9월 중국 정부 수립 47주년을 맞아 江澤民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중국에게 관계 증진을 위한 손짓을 보여주었다.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게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주었는데, 중국이 작년 6월 김일성의 밀랍 형상을 북한측에 기증한 것과 연변 등지에 탈북자 전용 수용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대표적인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수교 이후 약간은 멀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에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익을 획득하였고, 또 對中 자율성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UN의 제재를 쉽게 물리치는 데 중국이 보여준 간접적인 지원은 북한에게 핵협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핵협상 이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적어도 현재와 같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지도부의 의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려는 의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필요성은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만 하더라도 양국의 정치 관계가 개선된 측면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북한과 중국 양측은 북한 정무원 부총리 홍성남과 호금도 중국공산당 서기국 서기, 이남청 부총리

등 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중단됐던 양국 고위급간의 쌍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친선 관계의 강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작년 9월 중국 정부 수립 47주년을 맞아 江澤民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朝中 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북)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에게 관계 증진을 위한 손짓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게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주었는데, 중국이 작년 6월 김일성의 밀랍 형상을 북한측에 기증한 것과 연변 등지에 탈북자 전용 수용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대표적인 것이다. 중국이 보낸 대북 우호의 결정적인 사례는 지난 9월 江澤民이 북한 정권 수립 48주년을 맞아 “우리는 中朝 두 당과 두 나라 정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쌍방간 친선 협조 관계가 기필코 만고에 빛나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수교 이후 약간은 멀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에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중 군사·안보 관계의 변화

북한과 중국의 군사 관계는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1961년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북중 관계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소원해졌던 군사 관계는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 하에서 양국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데에 기인한다. 먼저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이 증가하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와 등소평 이후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江澤民이, 중국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종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군부의 입장에 순응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인

1992년 한중 수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북중 관계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소원해졌던 군사 관계는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 하에서 양국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데에 기인한다. 즉,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 패권 증가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위상 제고 의도, 등소평 이후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江澤民의 군부 지지 확보를 위한 군부 입장 순응 의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인 전략적 가치 부활 등으로 인한 북한에의 접근 필요성과 북한의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로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의 절대 필요성 때문이다.

전략적 가치의 부활 등으로 인하여 북한에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비록 남한 정부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흡수 통일의 의지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버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남 군사 우위의 확보를 전제로 한 군사력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양국의 이러한 상호 필요성은 양국간의 군사적인 유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국간의 군사적 유대 회복을 위한 징후들은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여유를 확보한 1996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창렬과 장만년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간 회담에서 양국간 군사 협력을 증진·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북한인민군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지난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의 대북한 교역량이 중국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중국의 대북한 교역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중국이 북한을 무시하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구소련체제 변화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즉, 1991년 이후 구소련과 북한의 교역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중국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또 하나 양국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 징후는 중국 해군의 북한 방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 7월 중국의 북해 함대 소속 해군 함정 편대가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의 다각적인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의 대북한 무기와 탄약 수출이 작년 10월까지 346만 달러로, 이는 1995년의 99만 6,000 달러에 비해 247% 늘어난 것으로 양국간의 군사 관계의 증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결국, 이상의 몇가지 사실들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 관계가 다시 긴밀하게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북중 경제 관계의 변화

최근 북한은 식량, 생필품, 일반 소비재, 생산 원자재와 중간재, 에너지, 산업 부흥을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술 향상을 위한 능력에서조차 많은 분

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부족 현상과 더불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은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북한의 경제 운영 방식의 문제, 경제 운영 메커니즘의 문제, 통일된 정책과

장구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대외 경제 관계의 문제 등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징후들도 발견되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91년 이래 작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대외 경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1991년 구소련의 외채 상환 요구와 硬貨 결제, 그리고 1993년부터 중국의 경화 결제와 바터 무역 형태 변화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중국의 대북한 교역량이 중국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60년대에 중국 전체 무역량의 4%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2년에는 전체의 0.5%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북한 수출은 1985년 2억 3,900만 달러에서 1991년에는 5억 2,9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억 4,500만 달러에서 8,700만 달러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 같

은 교역량의 급격한 하락은 중국의 변화된 對한반도 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중국의 대북한 교역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중국이 북한을 무시하거나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구소련체제 변화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즉, 1991년 이후 구소련과 북한의 교역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중국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비록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이 중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작아졌지만, 절대량에서는 1993년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8억 9,000만 달러로 북한의 對중국 수입과 수출이 각각 전년 대비 11.3%와 91.2%가 증가하였다. 1993년 북한의 국가별 교역 구성비에서 중국이 31.7%로 5.7%의 독립국가연합(CIS)을 앞질렀으며, 수입에서도 39.25%로 18%의 CIS를 능가하여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중은 낮아졌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중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구소련의 체제 변화 이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여

북한과 중국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구소련의 체제 변화 이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96년 동안 북한에 12만 톤의 식량 지원,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원유와 코크스 제공, 현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해 '우호가격제' 부활,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 기업들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에의 적극 참여 등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증대시켰다.

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그러한 양상은 한층 강화되고 있고, 1996년 한해 동안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상당히 증대시켰다. 먼저, 중국은 작년 한해 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12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한반도 전문가는 작년 한해 동안 중국의 대북한 지원 식량은 62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유와 코크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현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하여 '우호가격제'를 부활시켰으며,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기업들에게 북한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중국 기업이 3억 달러 어치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몇가지 사실들은 과거 몇년 동안의 경험과는 다르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중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제한 요인들은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와 경제 성장 및 후계체제 문제이며, 촉진 요인들은 對북한 군사·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 상존, 중국의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중국의 對서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제한적 요인들은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 문제와 군부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간의 권력 투쟁 가능성이며, 촉진 요인들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간접 지원 및 김정일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국내 반대 세력 억제를 위한 중국 지지 표명의 필요성과 경제적 문제이다.

북중 관계의 전망: 제한 요인과 촉진 요인

먼저 북중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 의 독자적 행동을 저지하는 제한 변수로 대외 변수와 국내 변수를 상정할 수 있다.

대외적인 요인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 변수이다. 중국은 21세기 미국이 영향력을 주장한 나이(Joseph Nye)의 지적없이도 이미 동북아에서 유일한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 변수이다. 중국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엘친(Boris Yeltsin)의 訪中으로 국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위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수교는 어떤 의미에서든 북중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대내적인 요인으로 먼저 경제 성장의 문제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는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하

나는 후계체제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후계 문제와 연관지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물론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북중 관계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먼저 對북한 군사·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의 상존이다. 즉, 북한의 핵 문제 발생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보유 국가의 이미지라든가 혹은 이미 소멸된 북방 삼각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상존하는 남방 삼각 관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한의 포기는 중국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상태의 유지를 성장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변화를 겪지 않은 북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미 관계를 포함한 중국의 對서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1995년에 일어난 중미 관계 악화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중국이 대만 열쇠뿐만 아니라 북한 카드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증가하기 때문에 북한은 필요한 존재이다.

한편,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한적 요인과 촉진적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제한적인 요인으로

는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의 문제이다. 한중 수교와 북미 핵협상 과정을 통해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외교적 자율성을 획득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에서 군부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체제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김정일을 둘러싼 하부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양국 관계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양국 관계를 촉진시키는 요인도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간접 지원의 필요성,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국내의 반대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지지 표명의 필요성이다. 둘째,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1991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심각한 식량난이다. 셋째, 미국·남한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의 추구하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외교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적 필요성이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교육 훈련, 그리고 흡수 통일 가능성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양국 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다.

금년 한해 동안에는 중국과 북한 관계를 제한하는 요인보다는 양국 관계를 촉진하는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점차 호전될 것이지만 양국간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미 핵협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적)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 동주의적 관점에서 견지되어온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한중 수교를 전후하여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로 인해 북중 관계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그러나 적어도 금년 한해 동안에는 중국과 북한 관계를 제한하는 요인보다는 양국 관계를 촉진하는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점차 호전될 것이지만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과거와 같이 강하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포기는 단순히 한반도 조절 스위치의 상실이 아니라, 러시아와 같이 한반도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미 핵협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統